

국제철도도시 구축 '밀그림'

익산시, 국제화물철도역 구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익산시가 대륙철도 시대 국제철도 도시 구축을 위해 준비한 밀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철도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화물철도역 구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그동안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국제화물철도의 관문 역할을 선점하며 정부 추진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최종보고회에서 용역 책임연구원인

송원대학교 임광균 교수는 지난 중간 보고회를 통해 분석된 경제 타당성을 현실화하고 익산시 국제화물 철도역의 입지타당성을 강화했다. 국제 농기 자재 전문 유통단지 조성 등 화물철도역 부지를 활용한 정책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임 교수는 전라선·호남선·장항선이 합류하는 황등역을 국제화물 철도역의 최적지점으로 검토했으며 기존 화물차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동익산역의 경우 다른 인접한 철도 노선과의 연계가 불편하다는 근거로 황등역보다 입지타당성을 낮게 분석했다.

이번 최종보고를 통해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5월까지 용역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며 국제철도 중심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현을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에서 발표된 것처럼 통일 시대에 대비한 남북철도 연결의 기반조성이 본격화 될 것이다"며 "정부정책에 대해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하고 이번 보고회를 통해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을 잘 마무리해 익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는 지난 23일 정현을 익산시장 유미선 타코마테크놀러지(주) 대표,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경제관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반도체 소재 기업, 익산 유치

타코마테크놀러지, 제3일반산단에 투자 결정... 시와 협약 체결

반도체 소재 기업인 타코마테크놀러지(주)가 익산 제3일반산단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익산시는 지난 23일 정현을 익산시장 유미선 타코마테크놀러지(주) 대표,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경제관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타코마테크놀러지(주)는 사업지를 충남 논산에서 익산 제3일반산단으로 이전하게 된다. 제3일반산단 2만418.9㎡ 부지에 건립 공사가 진행되며 오는 2022년까지 총 103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 공사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오는 5~6월 중 착공에 들어간다.

공장이 건립되면 30여명의 신규 근로자들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산단·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존 고용인력 이동에 따른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반도체 소재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 기업이 익산시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양질의 고용 확대를 통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타코마테크놀러지(주)는 반도체의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자체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핵심소재(광개시제·레진) 등을 개발해 일본과 대만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삼성SDA, 동우화인켄 등에 납품하고 있다.

지난 2016년도 우수 기술연구센터 기업 선정, 2016년 세계일류상품 선정(디스플레이 감광제용 광개시제), 지난해 우량기술기업 인증 30여개의 등 록 특허 보유 등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반도체 소재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임시청사 이전 재검토해야"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청사 건립 사업비 투자가 명확하고 구체화 된 후 임시청사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익산시에 의견을 제언했으나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신청사 건립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냐 최근 LH의 부동산 투기 문제, 코로나19 경제 회복 지원예산 우선 필요, 자칫 공사비 전체가 시민 혈세로 추진될 우려 등으로 신청사 건립이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제대로 추진될지 염려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LH 리뉴얼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LH의 명확한 투자 계획이 확정된 후 임시청사 이전 등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익산시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임시청사 이전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할 것과 LH의 투자가 불투명할 시 후속 대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산단 불철 소방안전 간담회

익산소방서(서장 정미희)는 지난 22일 익산시 관내 산업단지 22개 사업체가 모여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소방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익산산단에 산재예방시설 교육장에서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22개 사업체에서 25명의 안전관리자가 모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22개 업체 안전관리자들은 산업단지에는 위험물저장·취급 및 가연성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등이 다수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손실이 예상되므로 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법 등 교육과 함께 소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민원에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 피해지원금 지원

지난해 11월 24일~지난달 28일까지 기간 중 폐업자 대상 50만원

군산시가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020. 11. 24. ~ 2021. 3. 28.) 격상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자를 지원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폐업일이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으며,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미보유한 군산시민이다.

신청 방법은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폐업사실증명, 2020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

다. 상기 필요서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해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시의 지원과 별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제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민준 시장은 "부족하지만 본 지원사업이 폐업한 소상공인의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다중이용업소

점검 위반사례 4건 적발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결과 위반사례 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특별점검 결과 5명 이상 동반인장 3건·오후 10시 이후 영업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으며, 영업주 3명에 대해서는 각 150만원·이용자 42명은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공중위생업소 1,429곳, 식품위생업소 4,938곳 등을 대상으로



익산시는 지난 11일부터 다중이용업소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행위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위 방역수칙 게시문 부착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등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환경오염 이제 그만! 감시단이 떴다!

군산시 환경지킴이 내달부터 활동 본격화

군산시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예방과 감시를 위해 오는 5월부터 군산시 환경지킴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군산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잘 알고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과 관계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 총 52명의 시 환경지킴이를 구성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시 환경지킴이는 환경보전에 꾸준한 활동과 관심을 가진 분들로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는 3년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지킴이들의 활동으로 그동안 시각자대에 놓인 환경오염행위 계도와 신고로 폐적 운영에 관한 조처'를 제정하고,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잘 알고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과 관계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 총 52명의 시 환경지킴이를 구성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